



2024년 도박중독 추방의 날 안내

매년 9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 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이 불법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극심한 심리·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년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제정하여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정보와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도박문제 퀴즈

“도박문제, 기다려주면 금방 지나갈 청소년기의 일탈이다?” (O / X)

도박문제는 ‘도박장애’라는 만성적인 진행성 질환입니다.

중독 단계에 이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비유할 만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도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박으로 크게 따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심하게 집착하게 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박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박문제는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과 전문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아동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가이드(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3)

“도박 빚, 한 번만 크게 승리해서 만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O / X)

도박으로 돈을 크게 따는 경험(Big Win)을 하게 되면 강렬한 자극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거나, 지금은 돈을 따지 못했지만 한 번만 크게 승리하면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도박으로 계속 큰 돈을 따는 것은 확률상, 운영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돈을 딴 경험 때문에 계속 불법도박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알아야 할 청소년 도박문제 토막상식

-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지정. 대리입금 주의! -

“청소년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펍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펍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 카지노게임 예시: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 불법 도박업체에서는 “외국 또는 국내에서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합니다.

○ 거짓말에 속아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불법 사채입니다.”

- 대리입금은 고리대금 형태로, 성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집니다.

- 대리입금 용어를 알고, 불법 사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대리입금: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고금리 사채행위

○ 수고비: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

○ 지각비: 대리입금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연체료를 부과

*출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부모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도박문제 SOS!

“영상으로 손쉽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자녀의 도박문제, SOS! 알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채널



2024년 9월 17일

전주효림초등학교